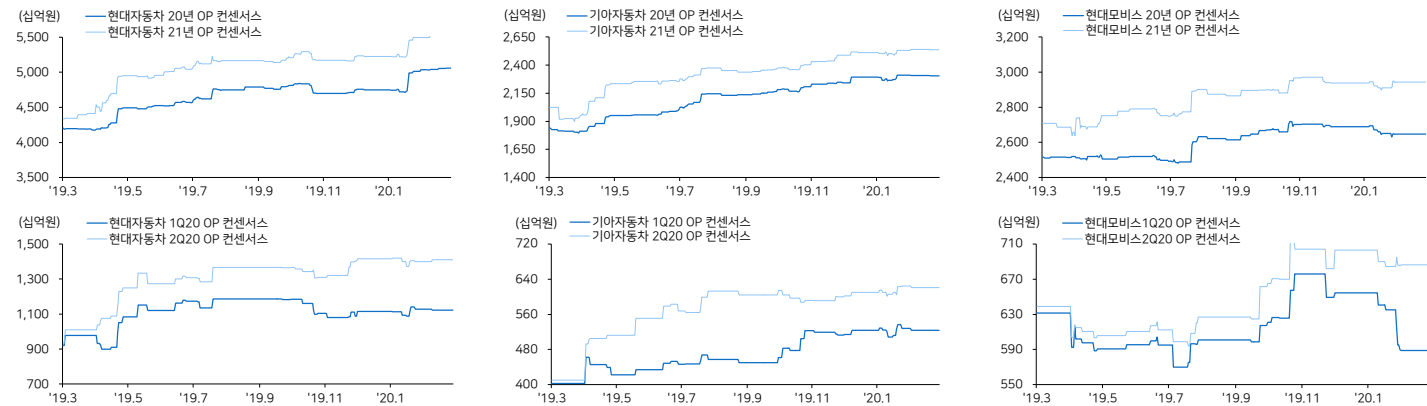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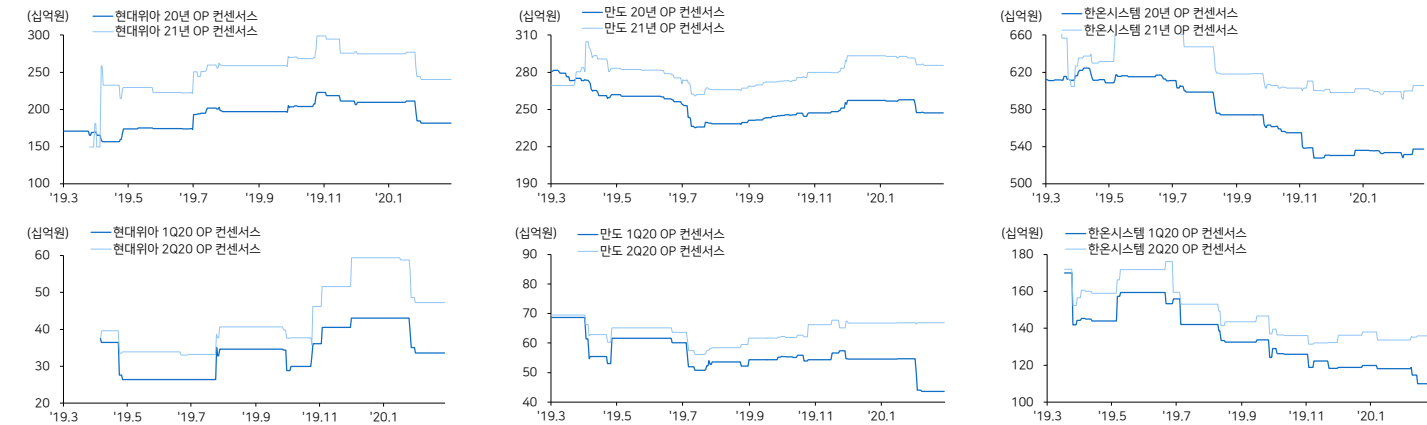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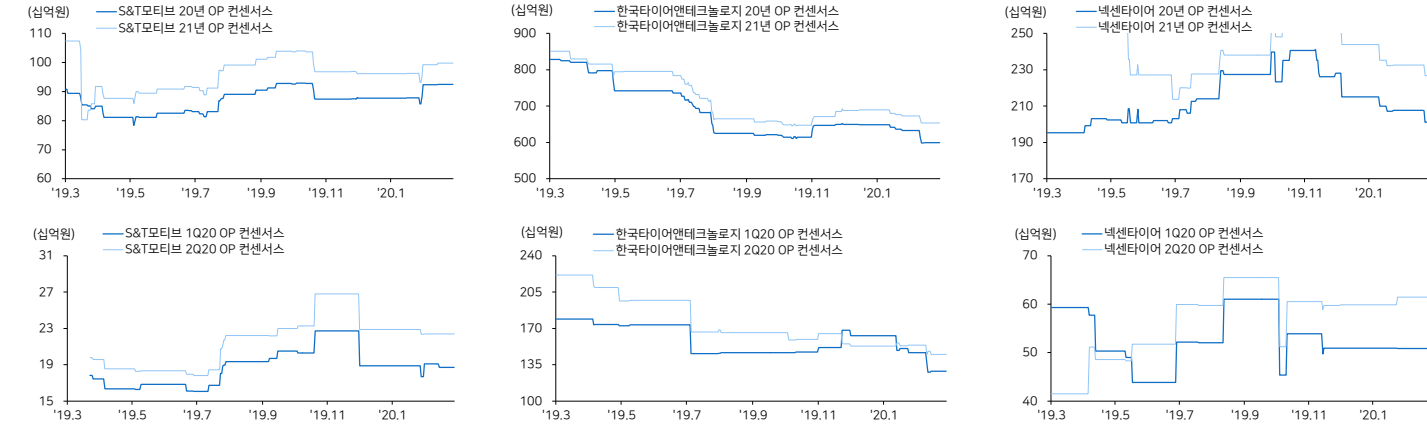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운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가장 빠른 제네시스SUV '가솔린 티보' 가세...2만 계약 돌파 (한국경제)

제네시스가 9일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기존 판매하던 GV80 3.0 디젤 모델에 대해 신규 2.5 가솔린 티보, 3.5 가솔린 티보 엔진 모델을 선보임. <https://bit.ly/2VYmVJL>

현대차 신형 크레타, 인도 첸나이공장에서 생산 돌입 (더그루)

현대자동차가 인도 첸나이공장에서 2세대 크레타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 세대변경을 통해 미드사이즈 SUV 세그먼트 시장 주도권 되찾는다는 목표, 현대차 인도법인인 오는 17일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는 '2세대 크레타' 생산을 시작. <https://bit.ly/2TczvKA>

현대 新車 딜레마 (조선일보)

현대·기아차는 올해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음, 아반떼, 카니발, G80 등 10여종의 신차가 출격하기 때문.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시행사 열자니 코로나 걱정... 미르연 개소시 인화 혜택 못보는 상황에 처함. <https://bit.ly/3cMVMWW>

'미국차는 지금 변신 중'...전기차 전환 '급가속' (미디어펜)

미국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과감한 행보에 나서고 있음.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제너럴모터스(GM)는 자사의 전통적 전략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단행. <https://bit.ly/3cJbwkP>

우한코로나 진원지 申 우한의 자동차 관련 공장들, 11일 일제히 '가동 재개' (조선일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문을 닫았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자동차 공장들이 오는 11일 일제히 가동을 재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https://bit.ly/2VlOW4r>

'타다 금지법'이 기아차 '카니발' 실적에 미칠 영향 보니 (시사저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타다 금지법)의 국외 본회의 통과가 기아차 카니발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됨. 해당 법안의 통과로 타다, 자차크리에이션, 파파의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 <https://bit.ly/2vQq62k>

주요 자동차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에 이유있는 투자 '올인' (파이낸셜뉴스)

WSJ은 투자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GM을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이 파나소닉과 손잡고 세운 배터리 공장 '기팩토리'로 성공한 테슬라에서 영감을 얻어 배터리 투자만이 실질적 보고 제휴업체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 <https://bit.ly/2TAU4Aq>

우버,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 방법 첫 공개 (시터닷컴)

세계적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최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방법을 공개, 우버의 이같은 작업방법 공개는 처음있는 일. <https://bit.ly/2IAFOG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항목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